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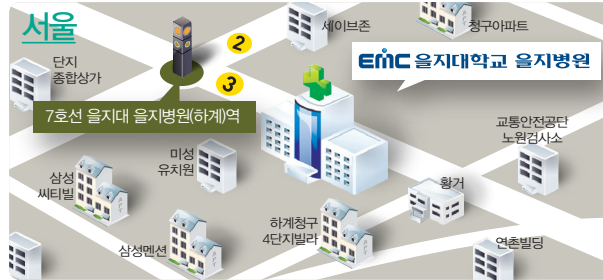
전립선암의 예방

전립선암의 예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물, 콩 등 채식 위주의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직장수지 검사,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으로 조기 잠복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전립선암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02) 970-8307, 8708

을지대학교병원 | 042) 611-3533

홈페이지 | www.emc.ac.kr

통합콜센터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을지재단**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 을지대학교병원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 범석학술장학재단 |

을지인력개발원 | 을지생명과학연구소 | 을지재단빌딩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비뇨의학과 전립선 비대증 · 전립선암



Urology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생식과 관련된 장기로 정액의 주요 구성성분인 전립선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식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데,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에 비대로 인하여 요도를 압박하고, 소변 배출 속도가 늦어지고, 이차적으로 방광 기능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되지는 않으며,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나 진행된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배뇨증상과 혈뇨가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검사 방법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인 병력을 조사하여 증상점수표, 전립선의 크기 측정, 소변 측정을 통해 진단합니다. 배뇨증상의 가볍고 심한 정도를 객관화시킨 설문지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직장수지 검사, 소변 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요류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일반적으로 실시합니다.

선택적으로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방침과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전립선암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검사로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대부터,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50대부터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권유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 수술, 덜 침습적인 치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소변보기 힘든 불편함을 해결해 주며, 가능하다면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현재에서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치료제는 알파차단제와 5-알파환원효소억제제가 있는데 전립선 크기가 큰 환자에서는 두 약제를 함께 복용해야 효과적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약 제제는 그 작용기전이 명확하지않고 대단위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추천되지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비정상적으로 커진 전립선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도내시경을 이용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이 가장 흔히 시행되는 표준적인 치료법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복 수술이나 전립선절개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

전립선암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대기관찰은 분화도가 낮고, 국소 전립선암이면서 고령인 환자에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전립선암은 비교적 서서히 자라기에 다른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은 국소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하는 수술로 전립선을 주변 조직과 같이 모두 절제하는 수술 치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출혈, 발기부전 및 요실금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원하지 않는 국소 전립선암 혹은 전립선암이 주위의 국소 부위에 퍼져 있을 때 시행하는 치료법이고,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남성호르몬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남성호르몬의 생성을차단하거나, 항남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전립선암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항암약물 치료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실시됩니다.

